

# 사별 간호

포항 선린병원 호스피스

최 성 은

## 유가족 간호 사별유형에 따른 실제적 접근

- 1. 배우자 사별
- 2. 자녀 사별
- 3. 부모 사별
- 4. 형제 사별

## 사별 = 죽음으로 인한 상실

- 사별을 앞두고 환자와 가족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가? → 그것은 상실감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전체와 부분
- 환자의 상실감과 가족의 상실감 차이 → 환자는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그 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반면에 가족은 자신의 삶 중에서 환자와 관련된 부분만 잃게 된다.

## 유가족을 돌볼 때 유의사항

- 죽음 앞에서 환자가 느끼는 상실감과 가족이 느끼는 상실감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 유가족 마다 사별로 인한 상실감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 사별 유형별로 나타나는 유가족의 반응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 사별 후 유가족이 보이는 행동 양상에 대해 판단을 중지한다(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유가족을 있는 그대로 대하고 이해한다.

## 사별 전 가족 교육 프로그램

- 사별 전 가족 교육 -
  - 1) 임종과정 및 증상과 이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 2) 임종을 맞이하는 가족들을 위한 도움말
- 임종과정을 겪는 동안 임종실에서 가족 전체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사랑의 고백, 감사, 용서, 작별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 지속적인 영적 돌봄, 정서적 지지 제공

### 사별 후 유가족 관리 프로그램

- 환자 사망시 필요한 안내 -영안실, 사후강직, 영정준비, 장례 절차, 서류발급(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보험관련) 등
- 근조화 보내기 - 위로 편지
- 빈소 방문 - 유가족 위로
- 빈소에서 가족들과 나눔의 시간(debriefing time)을 갖는다. - 임종시 과정을 보내면서 느낀 것, 경험한 것, 가족들간에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가족간에 서로 풀어야 할 이야기 보따리...
- 탈상 후 유가족 방문

### 사별 후 유가족 관리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일

  - 1) 빈소 방문 및 장례식 참여
  - 2) 유가족 중 어린 자녀 돌보기
  - 3) 가정 방문 - 실제적 도움 주기
  - 4) 전화 방문
  - 5) 경청 - 돌아가신 분의 병상생활, 임종당시의 상황, 느낌, 장례 절차와 과정, 사별 후 유가족과 주위의 변화(감정적, 신체적, 생활적인 면)

### 사별 후 유가족 관리 프로그램

- Anticipatory guidance 제공 (미리 예견되는 증상 안내)
- 유가족들이 겪게 될 사별 후 슬픔 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미리 예견하여 안내하고 도움이 될 자료를 발송한다.
-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 사별 후 유가족 위험사정

- 1) 14세 이하의 자녀 수
- 2) 부양 담당자의 직업
- 3) 사별 후 유가족의 고용 실정
- 4) 안타깝게 그리워하는 정도
- 5) 분노의 정도
- 6) 자신을 원망하는 정도
- 7) 환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과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성 밀착정도
- 8) 환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의 적응능력

### 사별 후 유가족 위험사정 평가

- 각 부분에서 체크한 점수의 총점이 15점 이상이면 유의해야 할 위험 수준에 있는 것이다.
- 8항목에서 4 혹은 5점이 많은 사람(32점-40점 사이에 있는 사람)은 고 위험(high risk) 수준이며, 초기에 집중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 유가족 초기 사정(1개월 이내)

- 유가족의 수면, 식욕, 일상 활동, 정서적 어려움, 인지 기능, 지지체계의 여부와 기능 등을 포함하는 유가족 상태를 사정을 한다.
- 사별 후 유가족들의 신체적 증상과 상태도 점검한다.
- 가족 구성원들의 사별 후 적응상태와 반응 양상을 점검한다.

## 1. 배우자 사별

- 배우자의 사별의 종류
- 1) 남편 사별
- 2) 아내 사별
- 3) 깨어진 가정에서의 배우자 사별
- 배우자 사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부간의 친밀감, 애착 정도 - 의존관계의 깊이
- 배우자 의존도에 따라 반응양상이 다르다.

## 1. 1) 남편 사별

- 남편의 역할 (일반적으로 ^^)
- 1)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 2) 가정의 가장(집의 기둥)
- 3) 아이들의 아버지
- 4) 경제적인 공급자
- 5) 대사의 결정권자
- 6) 가정의 대외관계 책임자

## 1. 1) 남편 사별 가족 사례

- 이 00님(남자/ 47세) - 간암
- 전직 모 기업체 연구소 연구원, 대학원 졸업
- 서울에서 시동생의 권유로 포항으로 요양차 내려와 본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봄 받고 신앙가진 후 병상세례 받고 평안히 임종하심.
- 부인 45세(대학 졸업/ 전직 국어 교사)
- 아들은 군대 입대 / 타지라서 친구가 가까이 없음.
-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과 친밀히 지내며 평소 상담을 많이 하고 의사소통 잘됨. 자주 눈물 흘림.
- 보호 1층 신청하여 수혜자 선정됨.
- 남편 사별 후 생계 대책 마련

## 1. 1) 남편 사별 가족의 현실

- 남편이 호스피스 대상자가 되면서 겪게 되는 아내의 역할 변화
- 남편의 존재로 인해 두려웠던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해력의 변화로 인한 혼란과 부담
- 남편 간병으로 사회활동 무재 및 사회성 결여됨.
- 000의 부인 - 결혼 후 남편으로 인해 갖게 된 정체성에 대한 혼란 -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 확립해야 할 과제
-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 .....빛, 생계, 집문제
- 그러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적응력이 좋고, 슬픔에 대해 반응하며, 감정표현을 한다.

## 1. 2) 아내 사별

- 아내의 역할 (일반적으로 ^^)
- 1)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 2) 가정의 살림살이 관리(재정부 장관)
- 3) 아이들의 어머니
- 4) 경제적인 조력자
- 5) 가정의 대소사를 남편과 논의하여 결정
- 6) 남편의 후원자(지지가)

## 1. 2) 아내 사별 가족 사례

- 한 00님(37세/ 여자)-현직 영어 교사(병가 휴직 중)
- 남편(39세)-현직 과학 교사(애사에 과학적, 합리적)
- 두 아들(11세/ 8세)
- 언니와 어머니, 친정식구들이 주로 낮에 간병
- 남편은 자택 퇴근 후 간병
- 진정은 불교, 시댁은 기독교 - 결혼시 종교 갖지 않기도 합의 후 결혼 - 무신론자로 살아옴.
- 평소 독서 잘하고 일기쓰며 늘 사색적이며 차를 즐겨 마심. 책 2권(지옥은 있다, 아픈다는 죽음을 위한 안내서) 읽은 후 기독교로 개종. 임종 전날까지 율내 새벽예배 반드시 참석하며 신앙심 돈독, 가족들에게 유언하며, 미리 편지 쓰고 평안히 임종함.
- 진종제 챙겨 환자 소원인 마지막 부부여행 다녀옴.

## 1. 2 아내 사별 가족의 현실

남편을 잃은 아내보다 아내를 잃은 남편의 현실이 더 심각하다.

아내의 자리(역할과 위치)에 공백이 생김으로써 겪게 되는 시행착오와 혼란은 현실 그 자체임.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현실 적응력이 약하고, 자녀양육과 교육, 집안 살림(요리, 청소, 세탁, 가계부 등등)을 혼자 감당하기에 벅차다. 홀애비 티가 난다. - 자신의 사소한 모든 것을 챙겨 주던 아내의 상실로 인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아내 없는 티가 난다.

## 아내 사별 후 남편의 고백

- 초상을 치를 때까지는 의연하게 버티던 남편이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후 집에 도착하여 들어가는데 “갑자기 집 현관의 천정이 콩하고 무너져내렸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관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다.”
- 사랑하는 아내를 그만큼 의지하였던 남편이 겪는 슬픔의 반응을 표현한 고백이었다.
- 자신의 버림목이던 아내가 곁에 없기 때문에!

## 배우자 사별 접근시 유의점(1)

-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별할 경우 양가 가족들의 입장 차이로 인한 미묘한 갈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말기 질환으로 죽어가는 배우자를 두고 양가의 평평한 대립이 노골적으로 대두되는 경우도 있다.
- 아내 사별시 친정 식구들의 태도가 그전에 사위를 대하는 태도와 다른 이유 - 사위가 재혼할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하기 때문임. 친정 가족들은 억울하고 속상함. 사소한 행동에도 서로 오해하며 양가가 싸움을 할 수도 있음.
- 이와 대조적으로 남편 사별시 비교적 조용히 넘어감.

## 배우자 사별 접근시 유의점(2)

- 환자와 사별 후 남은 배우자와 동성인 유가족 돌봄 제공자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치료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 공감하되 연민이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다.
- 특히 자원봉사자는 개인의 한계와 범위를 넘어선 유가족의 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호스피스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봉사 범위와 한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 모든 상담(전화 방문, 직접방문)이나 만남은 기록하고 보고되어야 한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칠 때도 치료적 관점을 유지할 것!!!

## 여성의 슬픔 치유의 어려움

- 새로운 정체성 확립의 어려움  
→ 남편 없이 혼자서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데 누구의 아내였던 옛 정체성에 매여 남편 없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데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낀다.
- 사별 후 몸과 마음이 쉬여 여유 없이 남편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함  
→ 가정에서 남편이 하던 일까지 감당해야 하고 막상 현실로 다가선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몸과 마음을 돌볼 여유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기 쉽다.

## 남성의 슬픔 치유의 어려움

- 슬퍼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치유 받을 시간도 없다!
- 감정을 묻어 두고 정상생활로 복귀하려 됨으로써 슬픔 치유가 더욱 지연된다.
- ‘대장부는 울면 안된다.’ 사회적, 관습적,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스스로를 억압하기에 슬픔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슬픔을 표현할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실제적인 도움 제공

- 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이므로 특히 유가족 돌봄 시 주의를 요한다. → 친밀감이 깊을수록 애착이 강하고 고인과의 기억이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상실로 인한 충격도 매우 크다. 충격에 반응 증임을 기억!
- 1) 남은 배우자는 보호가 필요하다. - 사고방지
- 2) 남은 배우자의 건강을 돌보도록 한다. - 건강검진
- 3) 중요한 이익과 손실을 가져오는 판단은 보류한다. - 예) 살던 집을 팔기 쉽다.
- 4) 실제적인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하다. - 요리, 청소, 세탁, 자녀 돌보기 등
- 5) 순간의 판단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업무의 보류 - 운전 금지

### 남은 배우자의 재혼

- 배우자와의 관계성이 친밀할 수록 남아있는 배우자는 혼자서 살아가기 힘들다.
- 항상 둘이서 모든 일을 상의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금실 좋은 부부의 남은 배우자에게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다.
- 슬픔의 터널을 통과하고 주위에 적합한 상대가 있다면 재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슬픔의 10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서 역할 조정과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 확립하고 슬픔이 차유된 시기에 재혼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를 위한 마음의 자리 준비!)
-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위에서 먼저 서두르거나 나서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 슬픔의 10단계

1. 충격
2. 감정 표출
3. 고인에 대한 집착
4. 신체적 정서적 증상 발현
5. 적대감정
6. 죄의식
7. 우울
8. 침거
9. 관계를 맺기 시작함
10. 현실에 재적응 하는 결단

### 1. 3) 깨어진 가정에서의 배우자 사별(1)

- 날마다 와서 발씻어주는 남편 -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영마니까 내가 마지막을 돌봐주고 싶었어요."
- 미모의 S00님(53세/유방암)
- 수십년 전 환자가 위하여 이혼, 아이들 키우며 혼자 살던 남편이 아내가 말기 질환임을 알고 자신이 거주하는 P시로 데리고 와 돌봄. 지난 과거를 서론 용서 받고 용서하고, 신앙으로 새로운 희망과 남편과의 재회로 행복을 누림.
- 병상세례를 받고, 남편의 축하 선을 난초 화분을 받고 행복해 함. 마지막 임종시까지 행복하다고 하심.
- 무료간병인 연결, 자원봉사자들의 사랑과 돌봄

### 1. 3) 깨어진 가정에서의 배우자 사별(2)

- 이00님(60세/위암)
- 30년 전 집을 떠나 아내와 세 아이들과 연락 끊고 산지 30년 됨. -전화연락되었으나 아무도 오지 않음.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애들한테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다며 방문 거부 -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환자는 별다른 감정의 동요가 없음.
- 전국을 떠돌며 일용직 생활, 노숙자 생활하다 P시에 정착함. 늦게 신앙생활하여 암 발견 후 시골 교회 공동체가 돌봄. 자주 방문하고 장례식 책임짐.
- 자활후견센터 무료간병인 연결, 자원봉사자들의 돌봄, 교회와 호스피스팀의 협력으로 평안히 임종.

### 2. 자녀 사별

- 부모는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 어린 아이의 죽음에 대한 한국적 유교적 의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우리나라 과거에 심지어 아이가 죽으면 거적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다.
- 유교적 전통에서는 빈소를 차리지 않으며 아이의 사망 소식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꺼리거나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다. 영안실 관계자들도 빈소를 차릴 필요 없다 함.
- 반면에 서양은 죽은 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평등하다. → 미국식 장례식 : 죽은 자를 아름답게 화장하여 꽃으로 장식된 관 속에 넣고 방문객이 일일이 애도하게 한 후 장례식 예배를 드리고 무덤에서 하관 예배를 드림.

## 2. 자녀 사별

-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에게 자녀는 늘 어린 자녀다.
-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난다는 것이 비통하다.
- 나이든 자녀들은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한다.
-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 2. 자녀 사별 사례(1)

- 아이 사망 후 흉관을 제거하고 엄마가 한 시간동안 아이를 안고 업고 애도의 시간을 보냄. "아이를 너무 안아주고 싶었는데 흉관을 끼고 있고 호흡이 곤란해서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어요. 마음껏 아이를 안아주고 싶어요!" →사후강직 오기 전까지 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충분히 시간 보내시도록 함.
- 보통 아이들은 냉동실 보관 후 바로 다음날 화장함. 대개는 빈소를 차리지 않음. 저녁 늦게 사망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음.
- 근조화 보내드리자 빈소가 없어 부모가 어디서 방을 보내야 할지 몰랐는데 영안실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발인식장에서 근조화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며 너무 감사했다고 함.

## 2. 자녀 사별 사례(1)

- 탈상 후 부모가 방문하여 아이를 기억해 달라며 작은 화분을 감사의 뜻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선물함.
- 호스피스팀의 소아암전문의가 부모에게 사별과정에 도움이 될 책자를 구입하여 직접 포장하고 위로 카드와 함께 우편으로 선물을 보냄.
- 부모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답장받음.

## 2. 자녀 사별 사례(2)

- 남편 같은 아들을 보내고 정00 환아(16세/남/ 골육종)
- 5년 전 간암으로 남편 사별한 어머니의 각별한 사랑
- 아들을 남편처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키워왔는데....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자기가 싫어도 엄마 말을 따르는 아들 → 엄마와 자기 견해를 가지고 대화하기. 어머니가 지나칠 때 조절할 수 있었음.
- 남편 사별하면서 갖게 된 신앙의 힘으로 아들 살리기 위해 기적을 바라며 기도함, 온 교회와 어머니의 기도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해 줌, 어머니를 지행하도록 지지체계 역할 감당함 - 개인신앙체험.
- 아들 유언 남김 - *엄마, 누나 사랑해! 내 유포까지 잘 살아.*
- 아들 임종 사실을 믿지 못한, 교회 목사님 오셔서 위로하며 임종사실 받아들이도록 권면, 사모님이 죽음을 끌어 어머니 먹이고 힘을 북돋움, 기도해 주고 임종예배 드림, 아들 냉동실 안치 후 임종실에서 조문객 맞음, 아들 영실을 떠날 수 없어 함. 교회 공동체 방문하여 위로하고 어머니와 함께 화장터로 감, 장례식 후 화장하여 유골 뿌린 후 먹음 해서 병동을 방문하여 감사의 뜻 나누며 대화함.

## 2. 자녀 사별 사례(2)

-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아들이 누웠던 병실을 방문하는 어머니-웃으며 *"내가 미친거죠?"*
-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이 보고 싶다며 찾아와 고맙다고 하고 아들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어머니 -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서 버티지"*
- 병원을 지나가는 길목마다 잠깐씩이라도 호스피스 병동을 올라와서 보고 가곤 한다는 어머니 *"언제나 아들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올라와"*
- 아들이 누웠던 자리에 있는 환자를 보면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어머니 - *"내 아들같이서"*

## 2. 자녀사별 후 유가족 간호

- 1) 충격과 부인의 단계 -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고, 충격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경청한다.
- 2) 진면의 단계: 자녀를 잃은 슬픔을 진면할 수록 고통은 더 커져 가므로 고통을 견뎌야 하는 유가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한다.
- 3) 조정의 단계: 현실 재구성  
 작은 아이에 대한 생각을 과거의 추억으로 남기고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을 격려한다.  
 작은 아이에 대한 짐작을 벗어나 남은 자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며, 아이의 간병으로 소홀해진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격려한다.

### 3. 부모사별(1)

#### • 아동과 청소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 중 한 분을 사별했을 때 한 가정 안에 배우자 사별과 부모 사별이 동시에 공존하게 된다. 대개 초점은 배우자 사별에 맞춰지기 마련이다. 배우자 사별, 형제 사별, 자녀 사별이 공존하는 가족 안에서 어른들은 슬픔에 잠겨있고, 장례절차로 인해 분주하며 어린 자녀들에 대한 신경을 미처 쓰지 못할 수 있고, 장례식에서 아이들을 배제하기 쉽다. 그러므로 부모 중 한 분을 잃는 자녀들의 마음이 무시되기 쉬우므로 호스피스팀은 더욱 유의하여 돌봐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 준다면 더욱 바람직한 팀웍이 될 것이다.

### 3. 부모 사별(1)

날개가 꺾인 새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는 자신감을 상실한다. 엄마의 빈자리, 아빠의 빈자리-사랑과 지지를 받아야 할 성장과정에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 평생 인격적인 결함을 가질 수도 있다.

죽어가는 엄마(아빠)를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능력감으로 인해 괴롭다. → 평생 죄책감, 무능력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다. → 이것이 승화되면 아이는 미래 장래 직업을 의사가 되기로 걱정하기도 한다.

나중에 회상할 때 너무 철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데 자신은 동생들과 떠돌고 놀았다는 기억을 할 수도 있다. → 즉 아이들이 사별의 충격을 잘 치유받지 못하면 평생동안 자위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 3. 부모 사별(1)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죽음의식을 고려하여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해 주고,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도록 한다.

사별 전부터 부모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대화 나누도록 배려한다. 부모로부터 유언을 듣고, 자신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부모의 소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작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한다.

부모의 장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아동과 청소년도 자신들이 겪는 슬픔의 반응과 과정을 표현하도록 격려받고 경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3.부모사별(1)

• 아동의 발달상태에 따른 죽음의 개념과 주된 정서반응-실제적 접근

1) 2살까지 : 까공 놀이로 죽음에 대한 개념을 알릴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만 간주하므로 분리불안을 느낀다. 부모의 사랑을 세밀하게 받아야 할 시기이므로 이를 대신할 가족이 늘 함께 있어야 한다.

2) 2-6세 사이 : 죽음을 '긴 잠'이나 '이별'로 이해 할 수 있으나 시간개념은 없다. 애도반응에서 나타나는 모든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정서반응에 주의하고 존중한다.

### 3. 부모 사별(1)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죽음의식을 고려하여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해 주고,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도록 한다.

사별 전부터 부모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대화 나누도록 배려한다. 부모로부터 유언을 듣고, 자신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부모의 소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작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한다.

부모의 장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아동과 청소년도 자신들이 겪는 슬픔의 반응과 과정을 표현하도록 격려받고 경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3.부모 사별(1)

### 3. 부모 사별 (1)

- 1) 아동과 청소년 부모 사별 사례  
 부: 배00님(체장암/ 42세/남자)  
 모: 천00님(담도암/40세/여자)  
 저소득층, 보호 수급자  
 고3, 중3, 초6 세 자녀들(딸2, 아들1)  
 한꺼번에 부모를 다 잃게 된 유가족들  
 → 호스피스 간호 통해 통증조절로 신체적 평안, 자원봉사자 돌봄 및 간병, 영적 돌봄으로 부모들 신앙얼고 전인적 평안. 임종 후 아이들까지 돌봐주어 큰 애 간호대학 장학생 합격까지 유가족 간호 제공함.

### 3. 부모사별(2)

- 성인자녀의 부모 사별  
 주돌봄자 : 부모를 돌보던 자녀의 슬픔  
 부모와의 관계성, 부모의 평소 성품, 성격이 주는 영향이 크다. 각 자녀들과의 관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례1 : 윤00님(67세/남/간암)-울릉도 이00님(63세/여/간암)-남편 사별 후 건강 검진에서 간암 발견, 3개월 후 임종  
 사례 2 : 김00님(80세/남/폐암)-3형제 자녀들

### 3. 부모사별(2)-노인 사별

- 노인의 죽음 : 질병, 노환 → 자연사
- 노인의 가족 내에서의 애정, 역할, 지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자녀들의 반응
- 노인에게 질병악화 사실을 숨기는 경우  
 → 사별 후 더 후회하게 됨, 적절한 시기에 가족 중 장남이 직접 통고하는 것이 좋음.
- 노인도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인생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 바람직한 사별 : 성경에서 아곱의 임종 → 12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임종

### 4. 형제 사별(1)

- 청소년의 애도 연구 : 중단적 연구(ida, 1999)
- 암환아 사별한 21가족의 31명 청소년 대상
- 암환아인 형제 사별 후 7-9년 동안 여전히 고통과 상실감 경험
- 사별 과정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이 성숙할 수 있었다고 응답
- 6명 중 1명은 형제 자매의 죽음으로 인해 아직도 부정적인 영향받고 있다고 응답

### 4. 형제 사별(2)

- 어린이의 애도 : 형제 사별 당시 7-9세 아동 대상으로 7-8년 후 심층면접 조사(ida,1999)
- 질병지식, 죽음인식, 형제자매의 죽음이 주는 의미 질문 결과
- 대상자들은 그들이 어렸어지만 죽어가는 형제자매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를 원했다. 자신의 형제자매에게 죽음이 임박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방관자일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 4. 형제 사별(3)-1

- 성인의 형제 사별 - 동성의 형제
- 때때로 연로한 부모님보다 가장 가까운 자매간이 간병을 맡으면서 애착관계가 강한 경우
- 4녀 중 막내인 환자(41세/여/흑색종)
- 3남 4녀 중 둘째인 환자(39세/여/간암)



#### 4. 형제 사별(3)-2

- 성인의 형제 사별 - 이성의 형제자매
- L00 남(64세/남/취장암)  
부인(60세), 외아들(29세), 며느리(25세)
- 고모(환자의 가장 친밀한 누나/외국거주)
- 독신으로 지내 늘 환자가 안타깝게 여기며 살아  
생전에도 누나의 소소한 일까지 돌봄. 귀국하여  
간병나서면서 문제 심각. → Manipulation(조종)
- 부인과 아들의 역할 박탈, 재산권문제까지 지나  
친 간섭 → 사별 후 자신의 생계대책 강구

#### 사별 간호에서의 가족 중재

- 환자의 임종을 둘러싸고 가족간의 이권 다툼이 있을 수 있음.
- 결정시 가족간에 서로 다른 입장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 있음.
- 때로는 미묘하게 조용히 지나가나 때로는 극렬하고 시끄럽게 갈등이 드러나기도 한다.
- 가능한 한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호스피스팀이 개입해야 할 시기에 가족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주된 돌봄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현명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가족들이 결정하도록 안내한다.

#### 유가족 돌봄팀 - 자원봉사자

- 호스피스의 꽃! 자원봉사자님들!



- 유가족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필요성
- 호스피스 자원봉사분야에서의 전문성